

불서광장

그냥 가면 진짜 청평사는 볼 수 없다



청평사는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역사 아이콘이다. 천년 고찰의 전설과 각종 유물들이 청평사의 알맹이라면 웅장한 청평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은 청평사의 겉질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보면 굳이 알맹이와 겉질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 산과 절을 둘러 보면 진짜 청평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시리즈 불서의 대명사 '빛깔있는 책들'의 272번째 책이다.

청평사 운영할 자음|대원사 펴냄|8500원

관세음보살 이름만 불러도 도와주실까?



<묘법연화경>의 제 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떼어서 '관음경'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난을 살피주시는 크나큰 위신력을 설해 놓은 대목이다. 지금 당장 입으로 이름만 불러도 달려와 도움을 주신다는 관세음보살님. 정말 믿어도 될까?

저자는 '기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짜 밥을 얻어먹듯 기대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의 관음경|히로사치자 지음|이미령 옮김|대술바람 펴냄|1만원

5학년의 눈에 비친 '고통'의 실체



놀이터에서 지렁이를 누아 채는 까치를 본 선재는 지렁이의 생명에 대해 생각한다. 또 까치의 생명에 대해 생각한다.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선재.

그 고민은 동화작가인 아빠가 차근차근 풀어준다. 아빠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원하지 않고는 아빠도 속수무책이므로. 초등 5학년의 궁금증을 푸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논술의 내용'이 쌓인다.

석가모니가 들려주는 해탈이야기|고영섭 지음|자음과 모음 펴냄|1만1000원

'활대의 논쟁' 그 핵심을 만나다



중국 선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활대의 논쟁'이다. 혜능의 직계제자 하택신(荷法宗)이 달마 이래의 문법종지(頓法宗旨)를 세움으로 남종선의 큰 물줄기를 형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화의 가치는 크게 들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100여 년 전 동황에서 그의 어록과 법문집이 발견됨으로써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역사가 없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 하택신회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택신회신사어록|박건주 역주|씨아이알 펴냄|2만원

사찰음식은 눈으로 먹는다?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정산 스님이 전국 사찰에서 채집한 음식 6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눈으로 먹는 절음식'이란 타이틀의 일본어판이다. 35년간 스님이 애지중지해 온 비법을 털어 놓은 것이다. 스님은 사찰음식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먹길 권한다. 한국어 판으로 인기를 모은 책을 일본어판으로 출간한 것은 한국 사찰의 '명약'이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의미겠다.

한국 명찰과 정진요리의 맥|정산 스님 지음|서울셀렉션 펴냄|2만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묵언마을의 차 한 잔’ 펴낸 지개야스님

“‘자살’을 ‘살자’로 바꾼 사연 묶었어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심심찮게 소개 되는 묵언마을. 그곳은 세상살이에서 받은 상처가 깊은 대로 깊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번' 하는 심정으로 찾은 곳이다. 묵언마을이 조명을 받는 것은 종교 시설로는 유일하게 '자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얘기를 들어 줍니다.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이상의 고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하염없이 속에 있는 것을 털어 놓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하나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외로움에도 지쳐버린 상태니까요. 그렇게 속을 털어내고 난 뒤에는 묵언을 하게 합니다. 보통 3일을 하게 하는데, 묵언은 끝없는 자신과의 대화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묵언을 하면서 뭐든지 좋으니 글을 쓰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 모두를 손으로 쓰면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자 출가하여 '묵언마을'을 설립한 지개야스님. 스님이 최근 펴낸 <묵언마을의 차 한 잔(에이엠 텐, 1만원)>에 실린 24

편의 글들은 하나같이 막막하고 비통한 제목을 달고 있다. '남이 부러워 한 결혼,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장애 있는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할까요' 등등. 그만큼 사는 것이 절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무리 큰 고통을 안고 온 사람이라도 지개야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묵언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는 것 이상의 방편을 쓰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스스로 답을 찾게 되거든요. 원인과 결과도 항상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무의시(無畏施)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대개 돈, 명예, 사랑, 배신, 자존심 등을 키워드로 한다. 묵언마을에서는 바로 이들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자존심이 나를 죽인 뒤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자살을 하면 남은 가족에게 따라 붙은 꼬리표는 어찌 할 것인가? 내면 깊은 곳에 이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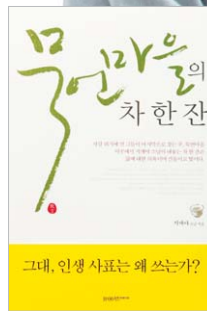
"지금의 불행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

입니다. 또 지금 행복할지라도 조만간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행과 행복은 한 몸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묵언마을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곳입니다."

<묵언마을의 차 한 잔>은 묵언마을에서 '자살'을 '살자'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이렇게 어려웠던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당신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나? 자살을 하려거든 3일간 묵언해 보라 하는 뜻에서 여러 사연들을 소개 한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지개야스님.

수행자 고뇌 통한 인생 진실 궁구



두 번째 출가

현진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원

우리시대의 많지 않은 '잘 짤 쓰는 스님' 가운데 한 스님으로 꼽히는 현진 스님의 '출세자(?)'은 12년 전에 펴낸 <두 번째 출가>다.

산사의 향기를 세속으로 전하고 무소유의 승가 생활을 세상 사람들의 생활모범으로 이끌었던 법정 스님 이후 출현한 글 짤 쓰는 젊은 스님들의 활약은 자못 크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생활상과 정체를 고집하는 승가의 풍속도가 그나마 부드러운 교집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젊은 글쟁이 스님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각종 신문에 맛깔스럽고 위트 있는 칼럼을 실으며 부당한 현진 스님의 글은 수행자의 고뇌 또는 에피소드를 통한 인생의 진실을 궁구하는 진지함이



매력이다.

<두 번째 출가>는 현진 스님이 산사가 아닌 도심 사찰에서 수행과 전법의 '이중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상념과 일화들, 갖 출가 했을 때의 에피소드, 큰스님들로부터 듣고 배운 교훈들 등이 진솔하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알일이 엮여져 있다. 이 책이 12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 약간의 손질을 통해 새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결망을 세 번 묶었다 풀어야 산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dvertisement for buddhabook.co.kr featuring a row of book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a book '기우목동가 신간!'.

Advertisement for '해동불교미술원' featuring Buddhist art and the text '四代傳統'.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folk salt) featuring images of products and text about its benefits.

Advertisement for '양지국악사' (Yangjigukak)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and text about their products.